

“꼭 혈연으로 맺어져야 가족인가요?”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민영주 조단스튜디오



김상훈 · 윤정희 부부는 국내 최다인 7남3녀, 열 명의 아이를 입양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2011년부터 강릉아산병원 원목(院牧)을 맡고 있는 김상훈 목사가 병원을 배경으로 부인과 7남, 6남, 3녀, 장남과 함께했다(왼쪽부터).

※**김상훈**: 1960년 충남 논산에서 2남4녀의 장남으로 출생. 서대전고등학교, 한밭대 토목공학과, 목원대 신학대학원 졸업. 동방건설, 신라건설, 한국종합건설 등 근무. 함께하시는교회 목사 역임. 2011년부터 강릉중앙감리교회 목사로 강릉아산병원 원목실 근무 중.

※**윤정희**: 1965년 대전에서 1남2녀의 막내로 출생. 충남여고, 충남대 국문과 졸업. 공주동곡요양원, 함께하시는지역아동센터 등 근무. 모범시민 대전시장상,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 MBC 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장, KBS 감동대상 가족상 등을 부부 공동으로 수상.

강원도 강릉에는 시끌벅적 웃음과 울음이 떠날 틈이 없는 가족이 산다. 이 집의 아이들은 3녀7남, 무려 열 명이다. 하은(21), 하선(20), 하민(16) 딸 세 명과 요한(15), 사랑(14), 햇살(14), 다니엘(14), 한결(13), 하나(8), 행복(6)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들 일곱 명의 부모는 김상훈(58)·윤정희(53) 부부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연년생 여덟 명에 동갑이 세 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나이를 보고 짐작했겠지만, 아이들은 모두 부부가 ‘기쁨으로 낳은’ 입양 아들이다.

지난해 11월 23일, 김상훈·윤정희 부부는 제29회 아산상 효행·가족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다른 2명의 수상자(권순옥·박미경 씨)와 함께 상패와 상금(3천만 원)을 받았다. 김상훈·윤정희 부부가 시상식장에 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입양했어도 우리 애들은 친자식과 똑같다. 자식을 키우는 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데, 자식 잘 길렀다고 상 받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한사코 수상을 마다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그동안 모범시민 대전시장상,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 MBC 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장, KBS 감동대상 가족상 등 적지 않은 상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의 KBS 감동대상을 마지막으로 모든 상을 고사해왔다고 했다. 정부에서 주겠다는 훈장 등을 거절한 것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를 상과 바꾸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차녀가 건강 찾자 신장 기증한 부모

아산상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수상을 받아들인 부부는 아산상 상금을 가족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상금 가운데 5백만 원은 김상훈 씨가 목사로 봉직 중인 강릉중앙감리교회에 헌금했고, 나머지를 어떻게 쓸까 생각하던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인이 생겨서 그에게 모두 주어버렸다.

전 재산을 취약계층 아동의 공부방 운영에 내주어 지금은 교회에서 마련해준 20여 평의 사택(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받는 목사 월급도 많지 않아 열 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빠듯한 생활을 하면서도 상금으로 가족 외식 한 번 하지 않은 김상훈·윤정희 부부. 이 특별한 부부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남편 김상훈 씨는 1급 기사자격증을 2개 보유한 엔지니어로서 건설업에 종사했다. 부인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의 교사였다. 1991년 부인의 친구 소개로 만나 이듬해 12월 결혼한 두 사람은 생활하면서 몇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첫 번째는 남편의 교통사고였다. 1993년 12월 31일, 건설회사



지난해 아산상 시상식에서 효행·가족상을 받은 김상훈·윤정희 부부와 자녀들이 시상자인 김태현 아산재단 이사(왼쪽 끝)와 함께했다. ©송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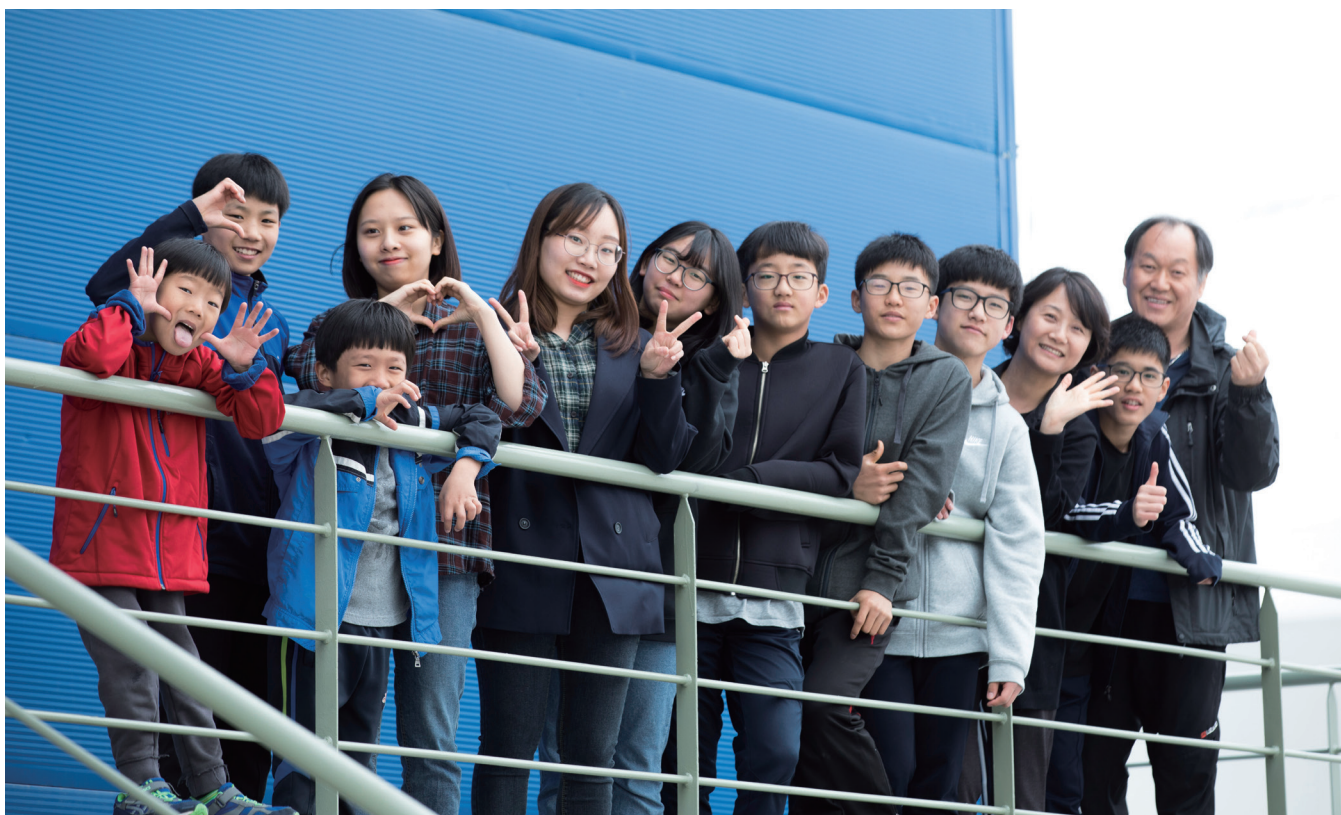
에 다니면서 현장 근무를 하던 남편은 음주 상태에서 충돌사고를 냈다. 남편과 피해자의 차를 모두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사고 후 남편은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 무늬만 교회 집사인 애주가여서 ‘주(酒)집사’로 불리던 사람이 ‘열혈 김(金) 집사’로 거듭난 것이다.

두 번째는 남편이 일하던 대전지역 토목회사들의 줄도산 여파가 미친 일이다. 1997년에 20억 원이 넘는 돈이 가압류되면서 남편은 형사처벌 위기까지 몰렸다. 이 사건 또한 원만하게 무마되면서 부부는 물질의 덧없음을 깨우쳤다.

가장 큰 고비는 부인의 잇따른 유산이었다. 네 번이나 아기를 잃은 부인과 남편은 ‘아이를 마음으로 낳아 기르라는 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부에게 처음 찾아온 아이들은 친자매로, 대전의 늘사랑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하은이와 하선이었다. 2000년 5월, 당시 세 살과 18개월이던 아이들은 부부의 장녀와 차녀가 됐다.

언젠가 학교에서 ‘입양아’라고 놀림을 당한 날, 차녀 하선이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너네한테 목숨 거는 엄마가 있어?”라고 대꾸했다. 이 말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선이는 일곱 살 때에 폐쇄성 모세기관지염으로 폐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생사에 기로에 놓였다. 이때 엄마는 ‘딸만 살려준다면 신장이라도 내놓겠다’고 기도했다. 기적적으로 하선이는 살아났고, 숨이 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상태에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엄마는 감사의 마음으로 2007년 4월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검사 뒤 2007년 10월 부산 봉생병원에서 생면부지인 50대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왼쪽 신장을 기증했다.

아빠 또한 하선이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딸이 건강을 되찾자 2002년 목원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장녀인 하은이가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행복(7남), 한결(5남), 하나(6남), 하선(차녀), 하은(장녀), 하민(3녀), 사랑(차남), 다니엘(4남), 햇살(3남), 엄마 윤정희 씨, 요한(장남), 아빠 김상훈 목사. 희한하게도 자녀들이 친형제처럼 닮아 보인다. ©정확영

뒤 200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뿐이 아니다. 부인의 신장 기증에 영향을 받아 그도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오른쪽 신장을 기증했다.

몸과 마음의 아픔 지냈던 아이들

조금씩 건강을 회복한 하선이는 부모와 한 살 위인 언니의 손을 잡고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알게 된 하민이를 동생으로 입양하자고 졸랐다. 병마를 이겨낸 하선이는 구순구개열을 안고 태어나 얼굴이 약간 뒤틀린 하민이를 보면서 '나도 아파서 힘들었지만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나 건강해졌듯이 너도 우리 집에 오면 건강해질 거야'라고 생각했다. 하선이의 소망대로 하민이는 가족이 됐다. 하지만 하선이의 동생 욕심은 한 명으로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입양되지 못하거나 파양된 아이들만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동생이 여덟 명이나 되는 누나가 됐다.

입양 당시 아이들은 크고 작은 아픔을 지냈지만 하선이의 믿음대로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열 명의 아이들 중에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엄마인 윤정희 씨가 중학교 때부터 봉사 활동한 대전의 늘사랑아동센터에서 입양했고, 여덟째부터 열째까지의 아이들은 2011년 강릉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강릉 자비원에서 입양했다.

각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이 가정에 온 아이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선천성 폐질환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하선이는 어느덧 간호학과 대학생이 되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장담하고, 퇴행성 발달장애로 지능지수가 64였던 요한이는 IQ 137의 수재로 자랐으며, 안짱다리여서 정상적인 성장이 힘들 것이라고 진단받았던 사랑이는 쇼트트랙 강원도 초등학생 대표를 거쳐 사격 선수로 활약한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모두 둘째아이들의 이름처럼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 3녀7남, 열 명의 아이들을 나이순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장녀 하은: 1997년 출생, 2000년 입양. 차녀 하선과 친자매. 간헐성 외사시 치료. 영동대 유아교육과 2학년을 휴학하고 호주를 거쳐 캐나다에서 선교사 교육받는 중. 장래 희망은 아프리카 선교사.

▶차녀 하선: 1998년 출생, 2000년 입양. 폐쇄성 모세기관지염 치료. 현재 영동대 간호학과 3학년.

▶3녀 하민: 2002년 출생, 2006년 입양. 구순구개열 치료. 강원도 중학생 수영 대표 출신.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홈스쿨링 중. 간호선교사 지망.

▶장남 요한: 2003년 출생, 2007년 입양. 베트남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후 퇴행성 발달장애 증상을 보였으나 중학교에 다니며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함. 5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1개월 만에 파악된 아픔이 있으며 심한 아토피를 앓았으나 치료함. 중2 때 자퇴하고 홈스쿨링 중. 과학고 지망.

▶차남 사랑: 2004년 8월 출생, 2007년 입양. 사천중 사격 선수이며, 강원도 초등학교 쇼트트랙 대표 경험이 있음. 안짱다리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으나 꾸준한 재활치료로 회복함.

▶3남 햇살: 2004년 10월 출생, 2008년 입양. 사천중 사격 선수로 활동 중.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기를 희망함.

▶4남 다니엘: 2004년 11월 출생, 2012년 입양. 뛰어난 운동실력으로 초등학교생일 때 농구·배드민턴·쇼트트랙 선수였으며, 현재 양양중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임. 척추측만증 치료를 받았고, 체육교사를 희망함.

▶5남 한결: 2005년 출생, 2013년 입양. 강원도 초등학교 쇼트트랙 대표로 활동했으며, 5살 때 다른 가정에 입양 후 파악된 적이 있음. 사천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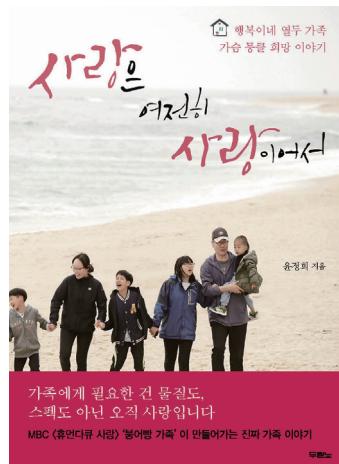
▶6남 하나: 2010년 출생, 2014년 입양. 암기력이 뛰어남. 사천초2.

▶7남 행복: 2012년 출생, 2013년 입양. 사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할 운명

남편 김상훈 씨는 1960년 충남 논산에서 2남4녀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서대전고등학교와 한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해 토목 엔지니어로 일하며 한국종합건설 등의 현장소장을 지냈다.

부인 윤정희 씨는 1965년 대전에서 1남2녀의 막내로 태어나 충남여고와 충남대 국문과를 마쳤다. 어릴 때부터 동네의 지하건물을 빌려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중학생 때부터 대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늘사랑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1989년 공주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동곡요양원에 입사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3년 동안 근무했다.



강릉아산병원 원목인 김상훈 목사는 본관의 원목실을 도서실로 꾸몄다. 중앙에 보이는 십자가 뒤에 작게 기도실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김 목사는 매일 새벽예배를 집전하고, 환자 및 가족의 고민을 들어준다(위). 부인 윤정희 씨가 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에는 가족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있다(옆).

1991년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윤정희 씨는 남편이 자신이 일하는 동곡요양원에 자주 방문하여 아이들과 기타를 치며 어울리는 자상한 모습에 반해 1992년 12월 대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한때 억대 연봉을 받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나 앞서 언급한 교통사고와 건설사의 부도 여파를 겪으면서 수입의 절반을 교회 헌금 등으로 기부하며 종교 활동에 매진하게 됐다.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2005년 6월 대전 용두동에 함께하는교회를 세우고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개척교회를 연 부부는 교회건물 4층을 임대해 사택 겸 공부방으로 리모델링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아 2011년까지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는데,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20여 명으로 늘었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45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이 됐다.

처음 1년 동안 사비로 운영하던 공부방은 2006년 7월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해 1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센터를 운영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학업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재능을 발휘하는 등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다. ©정화영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부 지원을 거절했다. 이후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운영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2011년 부부는 또 다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남편의 후배 전도사에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함께하는교회를 후배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해 1월 강릉중앙감리교회 소속 강릉아산병원 원목(院牧)으로 임명된 남편이 강릉으로 거주지를 옮길 당시 부인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두 명의 자녀와 함께 대전에 남기도 했다. 직장을 다니던 시누이와 지역의 교회단체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맡자 부인은 2011년 7월 강릉의 가족에게 합류했다.

대학생아닌 아이들은 휴대폰 없어

부부는 수많은 기부와 교회 개척, 지역아동센터 자비 운영 등으로 그동안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 대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때는 저소득층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남편이 현재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받는 월급 중에서 절반은 원목으로 근무 중인 강릉아산병원의 어려운 환자를 위해 기부하고, 4분의 일은 독거노인 봉사 비용으로 사용하며, 남는 돈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형편이다.

자녀들 덕분에 생긴 돈은 세상과 나누겠다는 신념 아래 2010년 KBS 감동대상 가족상의 상금 1천만 원은 아름다운가게에, 이번 아산상 상금 3천만 원 또한 교회와 이웃에 기부했다. 부인 윤정희 씨가 2016년 가족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서 적지 않은 부수가 팔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의 인세도 서울의 한 교회에

기부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월 15만 원씩 나오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아이들의 명의로 저축하고 있으며, 옷은 대부분 이웃에게 얻어 입고, 대학생인 장녀와 차녀를 제외한 8명의 자녀는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도 못한다. 대신 김상훈 목사가 강릉아산병원의 원목 일을 보는 틈틈이 공부해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친다(김 목사는 매일 오전 5시 병원에서 새벽기도를 집전하고 7시에 귀가한 뒤 다시 8시 30분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한다).

그런데도 이 특별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한다. 부부와, 또 부모-자식의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완전히 남이였을 열두 명이 가족을 이루어 가슴 뭉클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에 담긴 말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내 가족이 아니며, 사랑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면 많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감동적인 울림을 전해준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큰 영향을 미치는 엄마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애들한테 해주는 것은 매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싸우고 화내다가도 미안하다며 풀립니다. 내가 사랑 받은 만큼, 내가 귀하게 자란 만큼, 나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기적 같습니다. 한 번 엄마가 되었으니까 계속 바보처럼 웃으면서 애들 이랑 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